

# 매경춘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1162년 몽골고원 동북부의 작은 씨족에서 ‘테무친 보르지긴’이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친을 잃고 노예생활 등 역경의 시기를 보냈지만, 초원의 질서와 생리를 꿰뚫어 보는 탁월한 능력으로 세력을 키워 마침내 몽골고원을 통일한 후 대칸에 올라 ‘칭기즈칸’이라 불렸다. 그러나 몽골고원의 통일은 후일 세계사를 뒤흔든 대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칭기즈칸의 기마군단은 폭풍의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대몽골제국을 건설한다. 그와 후계자들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3300만㎢가 넘는 땅을 정복해 ‘팍스 몽골리카’를 탄

생시켰다. 칭기즈칸 군대는 상상을 뛰어넘는 기동력과 그물망 역참, 정보네트워크 등의 공할 위력으로 적을 압도해 버렸다. 불과 25년 만에 로마가 400년에 걸쳐 정복한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을 지배했다.

그러나 몽골이 청나라와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수백 년간 칭기즈칸은 잊힌 존재였고, 그의 이름은 금기어였다. 탄생 800년이 지난 후에야 ‘진정한 리더’ ‘천년의 역사위인’으로 부활했다. 1961년 그의 고향에 최초로 기념비가 세워졌다. 울란바토르에서 15시간여 대초원을 달리면 헤티아이막(주)의 다달솜이라는 지역에 닿는다. 소박하고 작은 돌무지와 푸른

깃발만이 그의 탄생지를 지키고 있다. 영웅은 그렇게 태어나고, 또 알려지지 않은 곳에 묻혀 있다.

몽골은 역사 속에서 고려와 조우한다. 거란족 격퇴를 위해 연합한 고려군과 몽골군은 형제의 맹약을 맺었고, 세계제국을 건설한 후에도 몽골과 고려는 그야말로 특별한 관계였다. 원나라의 지배하에서도 고려는 결혼동맹을 통해 예가 없는 독립국의 지위를 누렸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어디서 온 것일까. 김윤희 교수는 ‘몽골은 또 다른 한국’이고, ‘한국은 또 다른 몽골’이라 한

다. 몽골인은 오래전에 우리가 떠나온

## 몽골제국 이야기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또 몽골비사의 칭기즈칸 시조 알랑고아는 고주몽의 딸로 나타난다 한다.

동호 등으로 불리던 고조선의 후예는 고구려와 선비·오환 등으로 나누어지고 몽골족은 선비에서 분파된 실위족에서 유래한다. 몽골인들은 코리족에서 몽골족이 나왔고, 코리족 일파인 솔롱고스가 남쪽으로 가서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믿는다. 칭기즈칸은 고구려-발해의 왕가 후예라는 최근 연구도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몽골인구는 300만명 정도인데,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은 4만명에 달한다. 몽골인의 한국 사랑의 결과다.